

# 서울, 데이터센터 확 바꾼다… AI·재난 대응에 200억 투입

노후 정보자원 207식 교체·확충  
생성형 AI용 GPU 연산 기반 마련  
데이터센터 가상화·자원 공유 확대  
서초·상암센터 상호 복구체계 강화  
장애에도 행정서비스 24시간 유지

AI가 민원을 분석하고 도시를 예측하는 시대에 맞춰 서울시 데이터센터도 인공지능(AI) 전용 연산 기반과 클라우드, 재난복구 기능을 갖춘 디지털 인프라로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200억 원을 투입해 노후 정보자원을 교체하고 AI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시설과 백업 체계를 강화해 민원·교통·상수도 등 주요 행정서비스를 24시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약 200억 원 규모의 '2026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사업자를 선정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DB

하고 데이터센터 고도화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등 정보자원 207식(하드웨어 112식, 시스템소프트웨어 95식)을 구축해 AI·클

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서비스 운영 기반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생성형 AI 등 고성능 연산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I 전용 GPU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AI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전력과 냉각 등 데이터센터 기반시설도 함께 개선해 앞으로 확대될 AI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반 운영체계도 확대한다. 현재 약 85% 수준인 데이터센터 가상화 환경을 바탕으로 서버 통합과 자원 공유를 강화해 정보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한다.

재난 발생에 대비한 복구 체계도 고도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초센터와 상암센터를 이원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두 센터 간 재난복구(DR) 체계를 강화한다.

핵심 시스템은 한쪽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상호 재난복구 체계를 구축한다.

백업 전용 장비도 추가 도입한다. 온

라인 소산백업 환경을 확대해 대용량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백업하고 복구 시간을 단축한다. 이를 통해 백업 주기를 줄이고 장애나 재난 발생 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AI 행정과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행정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이터센터 기반을 구축하고, 재난 대응체계와 서비스 연속성을 강화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데이터센터는 서울시 디지털 행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재난과 장애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행정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성적 오른 재수생 84% “인간관계 제한”

진학사, 성적 향상 재수생 842명 조사  
인간관계 제한 응답 83.7% 기록  
SNS·유튜브 사용 제한도 74.9%  
집중 방해 요인 줄여 학습 환경 조성

수능 성적을 끌어올린 재수생 상당수는 공부시간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미디어 사용을 줄여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정보 플랫폼 진학사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성적이 오른 재수생 8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7%가 재수 기간 인간관계를 제한했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는 2026학년도 정시 마무리 시점인 지난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의 58.3%는 '필요한 연락만 유지했다'고 답했고, 25.4%는 '거의 차단했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줄비하게 설치돼 있다.

/뉴스1

다'고 밝혔다. 두 응답을 합하면 705명으로 전체의 83.7%다. '현역 때와 비슷하게 유지했다'는 응답은 7.4%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 사용을 줄였다는 응답도 많았다. '최소한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62.4%, '완전히 차단했다'는 응답은 12.6%로, 전체의 74.9%인 631명이 사용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 때와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응답은 20.9%였다.

진학사는 성적 향상에는 학습 계획뿐 아니라 일상에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연철 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인간관계나 미디어를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자신의 학습 리듬을 흐르는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며 "수능일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공부와 휴식, 미디어 사용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서울 초·중·고졸 검정고시 5908명 응시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시험 실시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 총 5908명이 지원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1일 서울 시내 12개 고사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재소자와 중증장애인 응시생을 위한 별도 고사장과 방문 시험서비스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도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를 11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자는 초졸 388명, 중졸 994명, 고졸 4226명 등 모두 5908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 지원자 40명과 재소자 45명이 포함됐다.

최근 3년간 서울 지역 검정고시 전체 합격률은 2023년 88.7%, 2024년 87.9%, 2025년 88.0%로 88% 안팎을 유지했다. 올해 1회 검정고시에는 4954명이 지원해 4368명이 응시했고, 3994명이 합격해 합격률 91.4%를 기록했다. 학력별 합격률은 초졸 91.9%, 중졸 93.6%, 고졸 90.8%였다.

/이현진 기자

고사장은 모두 12곳이다. 초졸은 선린중, 중졸은 고척중과 송곡중, 고졸은 서울여중·무학중·신현중·명일중·개원중·목운중 등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재소자를 위해 남부교도소에 별도 고사장을 마련했다.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지원자 2명에게는 자택으로 시험감독관이 찾아가는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초졸 지원자는 검정색 볼펜, 중졸·고졸 지원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오전 8시 4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원서접수 때 제출한 동일 사진 1장을 지참하면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아시아 최고 문화관광지’ 트래지 어워드로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북미 프리미엄 여행 전문 매체가 선정하는 'Trazee Travel Award 2026'에서 '아시아 최고 문화관광지(Best Cultural Tourism Destination, Asia)'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문화관광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국내에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12회를 맞은 'Trazee Travel Award'는 3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더페닌슐라 시카고 호텔에서 개최됐다. 앞서 지난 7월 29일 트래지 트래블 관계자가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 상패를 전달했다.

트래지 트래블은 25~40세 프리미엄 여행객을 주요 독자층으로 보유한 매체로, 평균 가구소득 21만 달러 수준의 고소득·고학력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다. 웹사이트는 월간 페이지뷰 190만 회 이상, 순방문자 78만 명 이상, 뉴스레터 구독자 10만 명 규모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교육부, 거점국립대 AI 경쟁력 강화

3개 대학에 첨단 분야 패키지 지원

교육부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지방 국립대 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도 신설해 지역 인재 유치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AI 분야 패키지를 지원하고, 전체 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지역협약정원과 인재양성 신속트랙을 신설할 것"이라며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통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부모 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호도가 높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학고, 자력특화 특성화고를 확대하고 돌봄·문화·체육 기능을 결합한 학교복합시설도 늘린다. AI 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최 장관은 "모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학·기업 연계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전국 400개 AI 중점학교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대학 중심 연구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연구지원 대상을 학사부터 석·박사, 박사후과정에까지 확대한다. 모든 대학생이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구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당진 드론공원, 국토부 지정 공원에 선정

석문산단 일원 1만4301㎡ 규모 조성

충남도는 당진 드론공원이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공원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공원은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한 취미·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정하는 공간이다. 국토부는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이용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한다.

당진 드론공원은 충남도가 2024년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한 충남 제1호 드론공원으로,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일원 1만4301.5㎡ 부지에 조성됐다.

공원에는 멀티콥터 이착륙장과 드론스포츠키장, 고정익 드론 활주로, 관리동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드론 비행은 물론 교육, 체험,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됐다.

충남도는 이번 국토부 지정을 계기로 드론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동호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전국 규모 드론 경연대회를 유치하는 한편, 지역별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권역별 드론공원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정은 충남도의 드론 기반 조성고 드론문화 확산 정책이 결실을 맺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드론을 안전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미래 인재 양성과 드론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충남)=양대승 기자 zzica@